

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 자료

장애의 역사 ②

(사) 장애인아카데미



장애를 다시 생각한다 ②

연결된 삶, 이어진 시간

(사) 장애인아카데미
글, 디자인: 황인욱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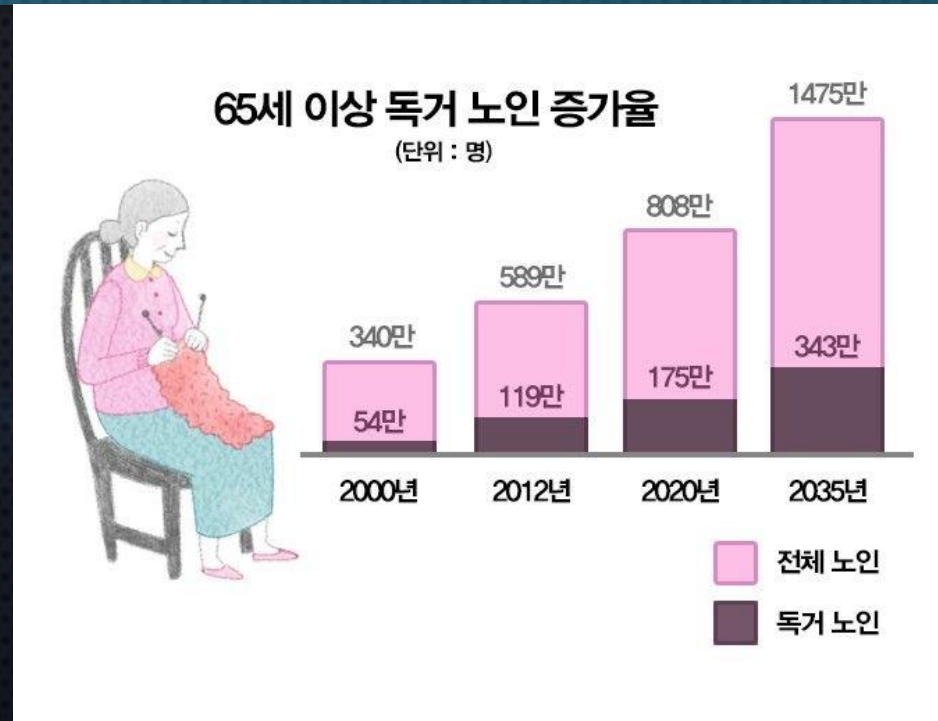


노인과 청소년



요즘 노인들의 삶

- 노인인구 3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 노인들에게는 질이 낮은 일자리가 돌아옵니다.
- 노인들을 돌보는 의료 체계가 아직은 약합니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은 별로 없겠죠?

내가 노인이 될 때 !

독거노인



노인 인구
3명 중 1명 독거노인

노인 문제를 이렇게 바꾸어 말해 볼까요?

- 여러분 3명 중 적어도 1명은 혼자 사는 노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여러분이 노인이 될 때 일자리 문제는 더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 현재의 공공의료체계는 여러분이 노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린 시절 찍은 단체사진 속에서
여러분을 찾아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어린 시절 모습과 달리
몰라볼 정도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인이 될 때 !

분명한 또 하나의 사실은,
과거의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으로
몰라보게 변했듯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은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게
변화되고 늙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인이 될 때 !

어린 시절의 나를
지금의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면,

**지금의 나와
노년의 나를 연결 짓지 못하는 것도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사진 : 헤럴드경제(2016.5.8.)

여러분은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지금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의 질이 좋든 말든,
혼자 된 노인들을 돌보는 공공서비스가 있든 없든,
노인들의 병든 몸을 보살펴 줄 공공의료체계가 잘 되어 있든 말든

상관 없습니까?



소녀는 할머니가 되고, 소년은 할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노인은 결국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만일 현재 노인들의 삶의 질이 점점 나빠진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안전할까요?



②

병영문화와 직장문화



요즘 군인들의 병영 생활



**GOOD
NEWS**

**최근 남북 평화분위기 속에서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유능한 인보 존중안국병
국방개혁 2.0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을
2018.10.1.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7. 1. 3. 입대자부터 적용되며,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도 해당

내가 군인이 될 때 !



GOOD NEWS

앞으로 군대에 입대하게 될 남자들에게는 기쁜 소식 아닐까요?

유능한 안보 전문인국방
국방개혁 2.0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군 복무 단축, 얼마나 줄어들까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사회복무요원
21개월 ↓ 18개월	23개월 ↓ 20개월	24개월 ↓ 22개월	21개월 ↓ 18개월	24개월 ↓ 21개월

공군의 경우,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
(2004년도에 1개월을 이미 단축)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 예정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예정)

요즘 군인들의 병영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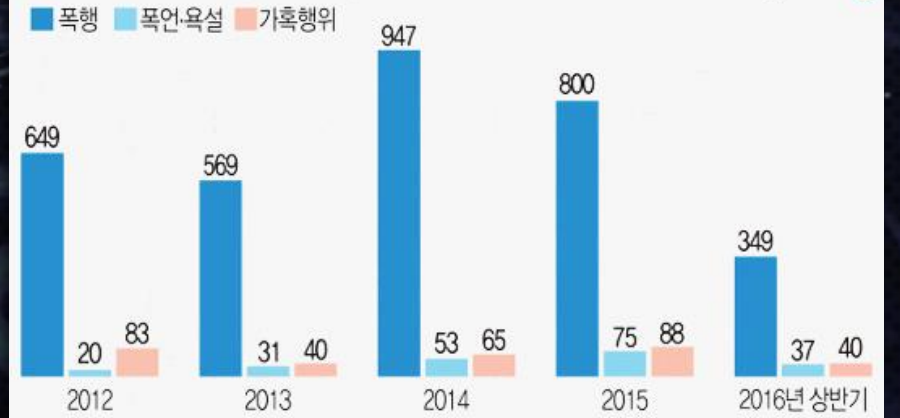


**BAD
NEWS**

하지만 군대에서 흘러나오는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군내 폭행, 폭언·욕설, 가혹행위 현황 (단위: 건)



출처 : 국민일보(2017.2.25.)

내가 군인이 될 때 !



**BAD
NEWS**

**여러분이 군대에 입대했을 때도
이런 나쁜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법률소비자연맹, '법외식' 관련 대면 조사, 2015.1 (전국 시민·학생 2325명 대상)

그러나 국민들의 눈에도
군대 내 폭력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곳에 관한 질문에
'군대(31.5%)'가 1위로 꼽혔기 때문이죠.**

(출처: Visual Dive 2016.7.12.)



**GOOD
NEWS**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차별 해소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성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을
약속합니다**

정부 합동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 발표



내가 직장인이 될 때 !



**GOOD
NEWS**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여성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테지요.**

An infographic with a blue header and white background. The header reads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in white text on a blue background. The main text in the center says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까지 확대' in large black and blue font, with '(2022년까지 단계적 시행)' in smaller black font below it. At the bottom left, it says '정부 <여성 일자리대책> 발표 2017.12'. On the right, there is an illustration of a woman in a black top and yellow skirt running happily, carrying a brown bag, with a man in a white shirt and tie running behind her. In the background, there are stylized grey buildings and a green tree.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까지 확대**
(2022년까지 단계적 시행)

정부 <여성 일자리대책> 발표 2017.12

출처 : 베이비뉴스(2018.1.9.)

요즘 여성들의 직장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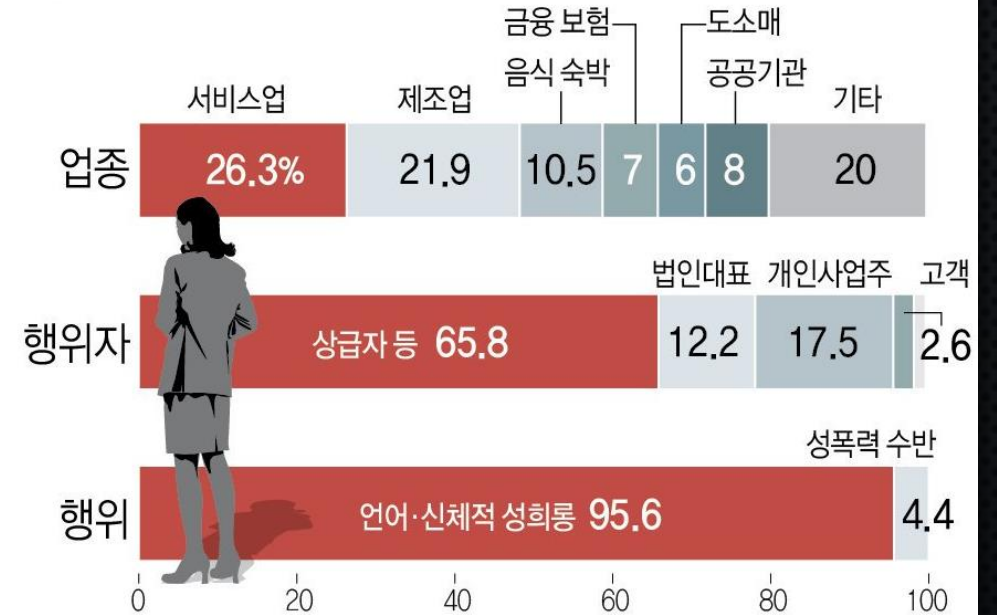
BAD NEWS

하지만 직장에서 흘러나오는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현황

3월8일~4월16일 총 114건 (실명 신고 69건·익명 신고 45건) 신고 분석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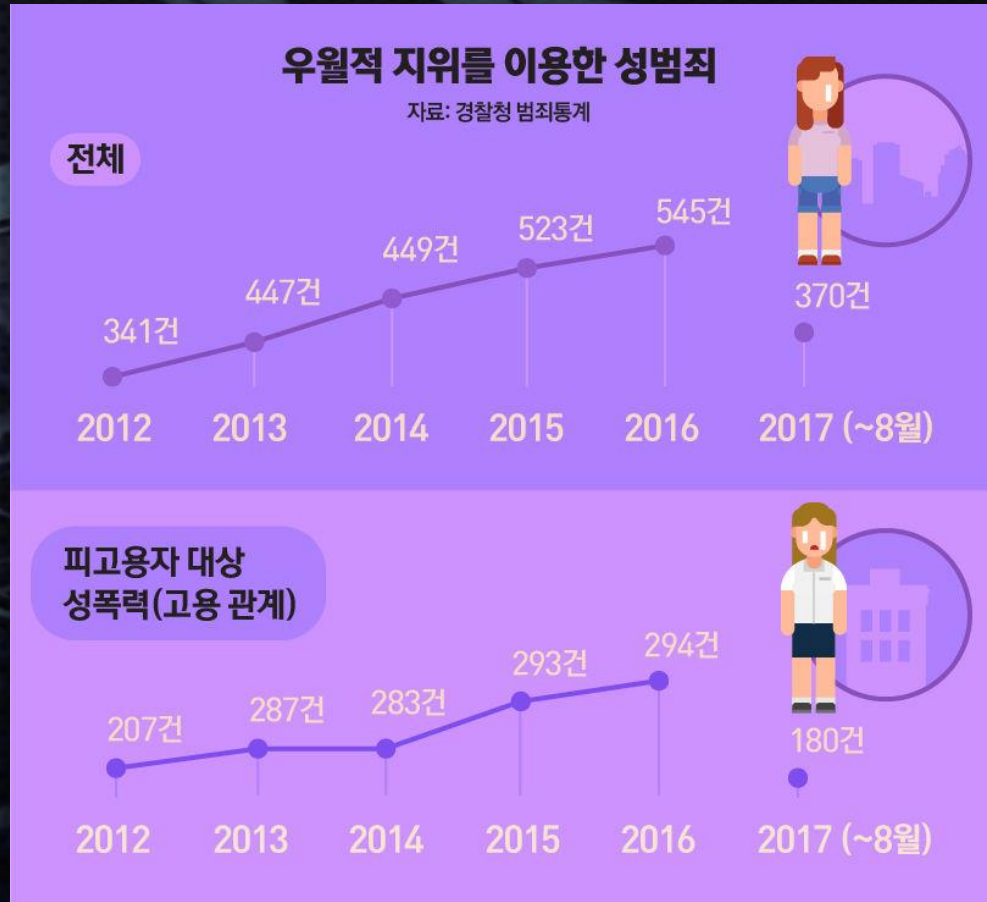
출처 : 연합뉴스 (2018.4.19.)

내가 직장인이 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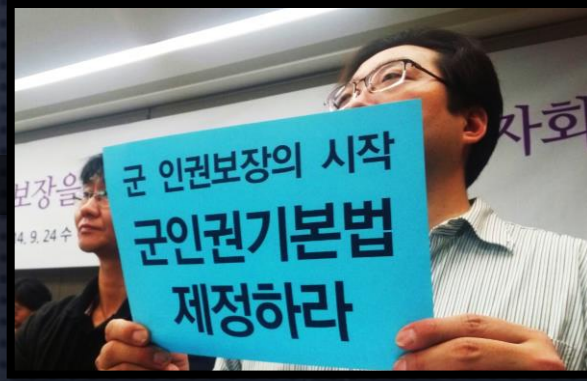


BAD NEWS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도
이런 나쁜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출처 : SBS뉴스 임수연 (2017.11.8.)



여러분들의 형과 누나, 언니와 오빠들이
지금 대학과 군대와 직장에서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앞으로 그 자리로 가게 될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③



교통사고와 전쟁



서양에서도 오랫동안
장애인은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선에서 젊은이들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장애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로햄튼 병원(Roehampton Hospital)에서 의족 재활 치료 중인 상이군인들. 1917
© Imperial War Museums

어느 날 갑자기 내 친구, 내 가족이 장애인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은

**처음으로
장애인의 삶과 일자리와 이동권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크햄의 한 농장에서 일을 배우는 상이군인들 © Imperial War Museums

추정 장애인구 수 단위:명



장애인구 중 고령 및 1인가구 비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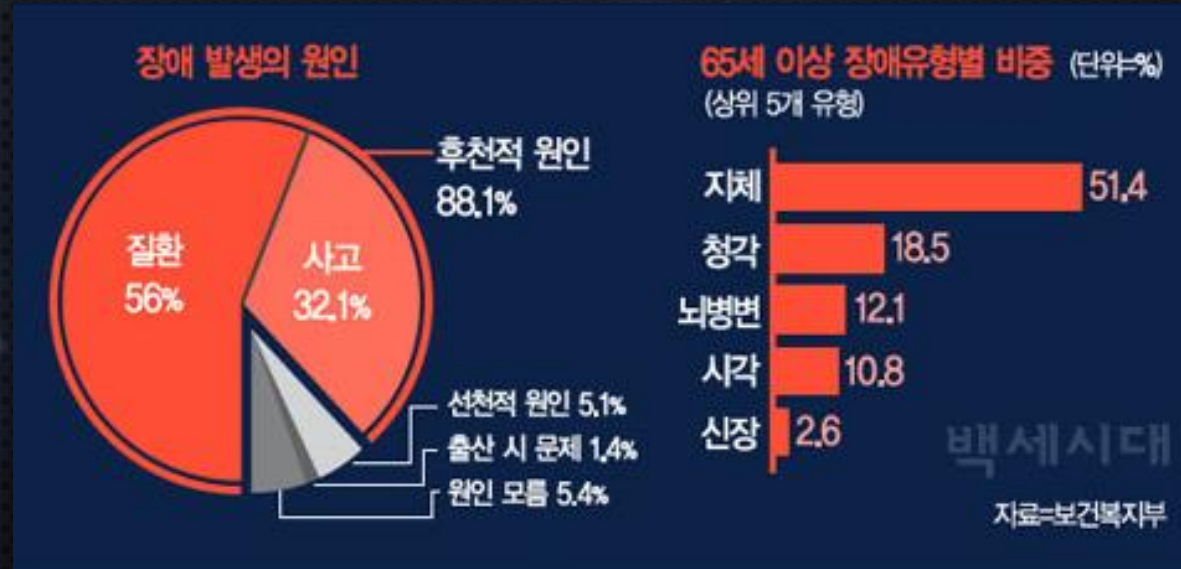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장애추정인구는
약 267만 명으로
인구 1만 명당 539명이 장애인입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이미지: 뉴스시스 그래픽 안지혜기자(2018.4.19.)

그런데 장애 발생 원인 중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한 비율이 약 88%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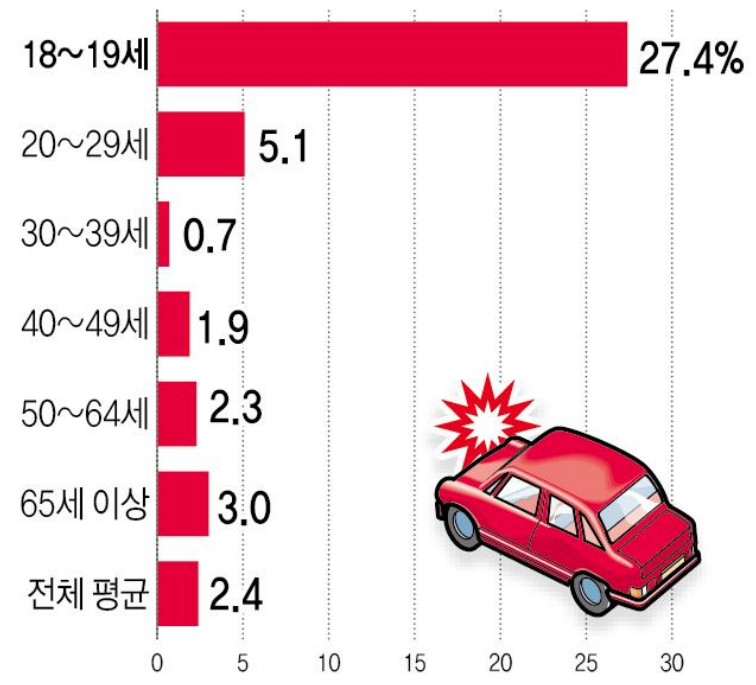


**대한민국 장애인 중 열의 아홉은
후천적인 이유로 장애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장애인이 될 때 !

연령대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 비율

최근 3년, 평상시 대비 여름 휴가철(7월 20일~8월 15일)
자동차 사고건수 증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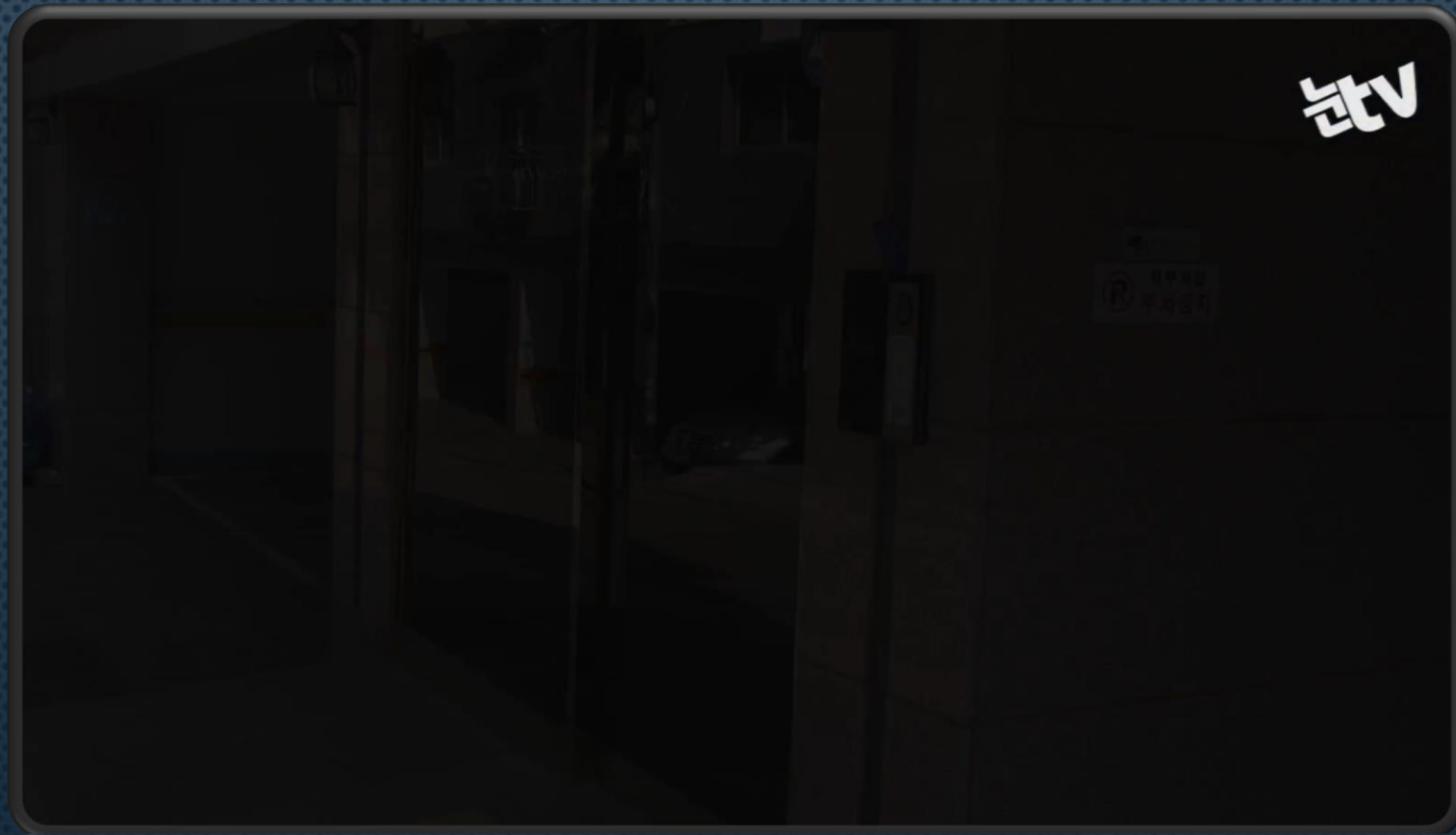


자료: 보험개발원, 출처: 연합뉴스 박영석 기자(2017.7.23.)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장애 발생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서까지
벗어날 수는 없으므로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



최소한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지금부터 잘 준비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생각해 봅시다.

- ◆ 지하철 계단이나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 기차 승하차장 등을 보면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고 느끼나요?
- ◆ 장애인들이 이동할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런 투쟁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 인도나 계단에 경사로가 있어서 편리하게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나요?

④

홍길동의 후예들



우리는 왜 서자로 태어나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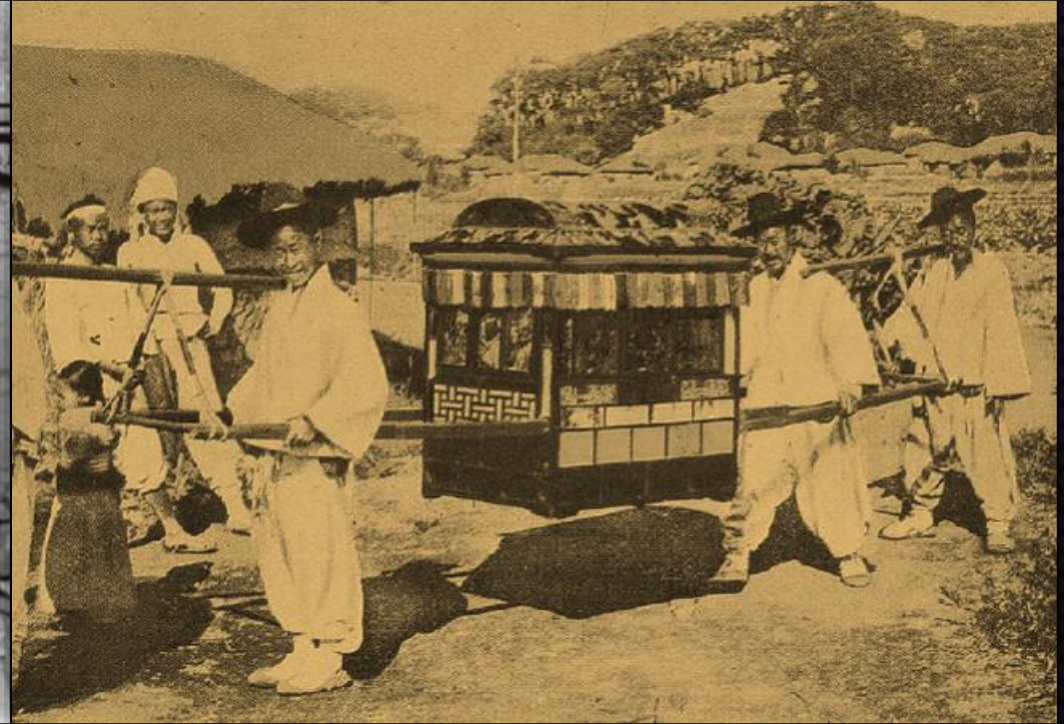
홍길동전을 아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신분사회에서 **차별**을 받던
서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신분의 벽을 깨뜨리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싸웠던
수많은 홍길동들이 있었겠지요.**



소설 속 홍길동은 세종 시절 홍 판서와 첩 춘삼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로, 호부호형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집을 떠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여러분 중에 노비나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더 이상 노비나 천민으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서자로 태어나지 않는가

조선의 신분 제도가 오늘날까지 유지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 중의 다수는 차별을 받는 괴로운 처지에 놓였을 겁니다.
신분이 높은 지배층은 적고 피지배층은 더 많은 법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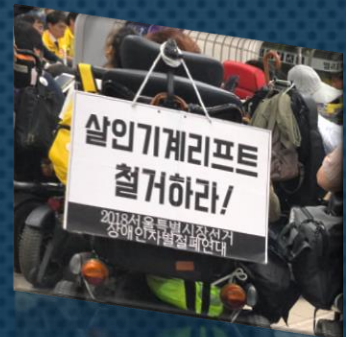
신분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심했던 조선 시대, 사진: 에밀부르다레(1900-1903)

이렇게 **과거의 시간**이 **현재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신분의 **장벽**을 깨뜨리기 위해 **싸웠던**
수많은 **홍길동**들이, 우리가 여전히 겪을 수도
있는 커다란 **차별**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남겨준 토대** 위에서
남아있는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을 뿐입니다.



5

함께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아도,
단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사리 판단을 못하는 '정신이상자'라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처분해도 된다는 생각이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말 폐쇄된 우리나라 1호 정신병원 <청량리정신병원> (사진: 일요시사, 2018.3.26.)

정신보건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복호 및 사회기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 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1.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정신보건법 24조 1항 -

“강제입원된 사람이 어렵게 퇴원하더라도
병원 앞에서 다시 구급차에 태워
곧바로 다른 병원에 옮겨지는
‘회전문 입원’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

**누군가는 그렇게 정신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학대하고
감옥과 같은 수용시설에 몰아넣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방관했습니다.**



“12년동안 513명 숨졌다”

新民조사단 釜山 형제복지원 수용자面談 확인

死因·처리과정등의혹
屍體隣大실협용으로도 판이

今週內 調査전모 공개키로

【부산=뉴시스】김영환 기자 부산형제복지원(이하 형제복지원)에서 12년간 숨진 513명의 사인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화재로 인한 사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부분 화재 예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화재 발생 시 대피 경로가 막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화재 발생 후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출하지 못한 소방서의 책임도 짊어지고 있다.



“나는 끌려왔다”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사람들이 신민당 조사단에 불법연금 및 복지원의 비인간적인 처우 등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이라는 부랑아 수용시설에서 일어난 사건이 최근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죽어 나간 사람만 5백 명이 넘었지만, 지금껏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 (사)장애인아카데미가 제작한 문서입니다. (글, 디자인: 황인옥)

부랑아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격리와 강제수용이 쉽게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과연 힘 없는 일반 국민들의 권리는 잘 보장될까요?

사진=형제복지원 운영자료집

카드뉴스 에너지경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랑인이 아닌 일반인들까지도
부랑인으로 낙인찍어 수용한 것!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의 진실” (출처: 에너지경제, 2018.3.8.)

함께 살기 위하여

장애인들은 공동체로 돌아오기 위해 기나긴 투쟁을 벌여야 했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단지 함께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함께 살기 위하여

윤삼호 | 임찬호
출처: 웹와치(2018.1.26.)



1978년 콜로라도주 덴버.

ADAPT
(접근가능한 대중교통 쟁취를 위한 미국 장애인들)
소속 장애인들이 연석을 해머로 깨부수어 버렸다.



ADAPT 회원들이 해머로 내리쳐 떼어낸 연석 덩어리들 중 하나. 현재 미국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당시 장애인들의 직접행동이 미국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이 보잘 것 없는 시멘트 덩어리가 잘 보여준다.



이렇게 하여 교차로와 횡단보도 앞 연석이 하나둘씩 제거되고 그 자리에 경사로가 설치되었다.

이런 변화는 미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갔다.



그렇다면 도시의 거리에 연석경사로가 보편화되면서 장애인들만 편해졌을까?



유모차를 이용하는 엄마, 아빠



전동카트로 이동하며 장사하는 '야쿠르트 아줌마'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들

편견, 차별, 불편, 격리...

휠체어를 타고 바라보아야 하는 아득한 계단처럼
장애인들이 넘어서야 할 장벽은 너무도 높은데,



**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아예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 (사)장애인아카데미가 제작한 문서입니다.
(글, 디자인: 황인욱)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의 삶도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연석이 사라지고 턱 없는 거리가 되자
휠체어 이용자만 편해진 것이 아니다

**장애인들의 노고 덕분에
바뀌달린 것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덩달아 안전하고 편안해졌다.**



장애인 편익을 위한 조치가
모두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현상-
연석-경사로 효과(curb-cut e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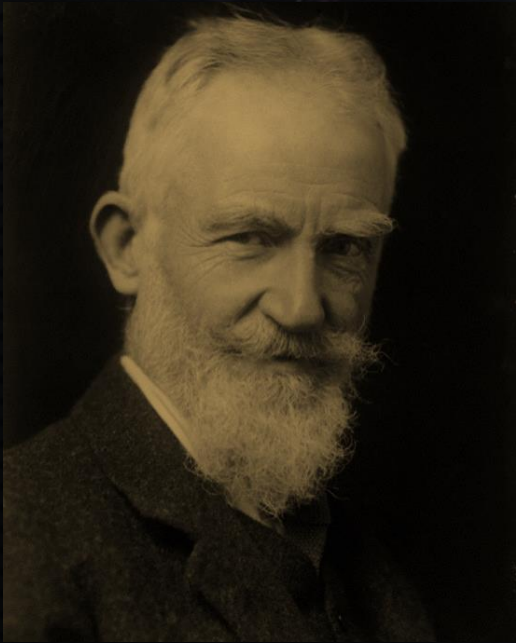


“장애인을 배제하는 작은 장벽이 무너지면서
휠체어 사용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45년 전 버클리 장애인들이 한 뼘에 불과한
바리케이드를 습격했는데, 오늘날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허물어진 바리케이드 위를 매일 지나다닌다.”
- 앤젤라 블랙웰 -

윤삼호 | 임찬호, 출처: 웹와치(2018.1.26.)

**그들의 현재는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들의 시간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다.
그러기에 이웃을 해치면 우리 스스로를 해치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도우면 우리 스스로를 돕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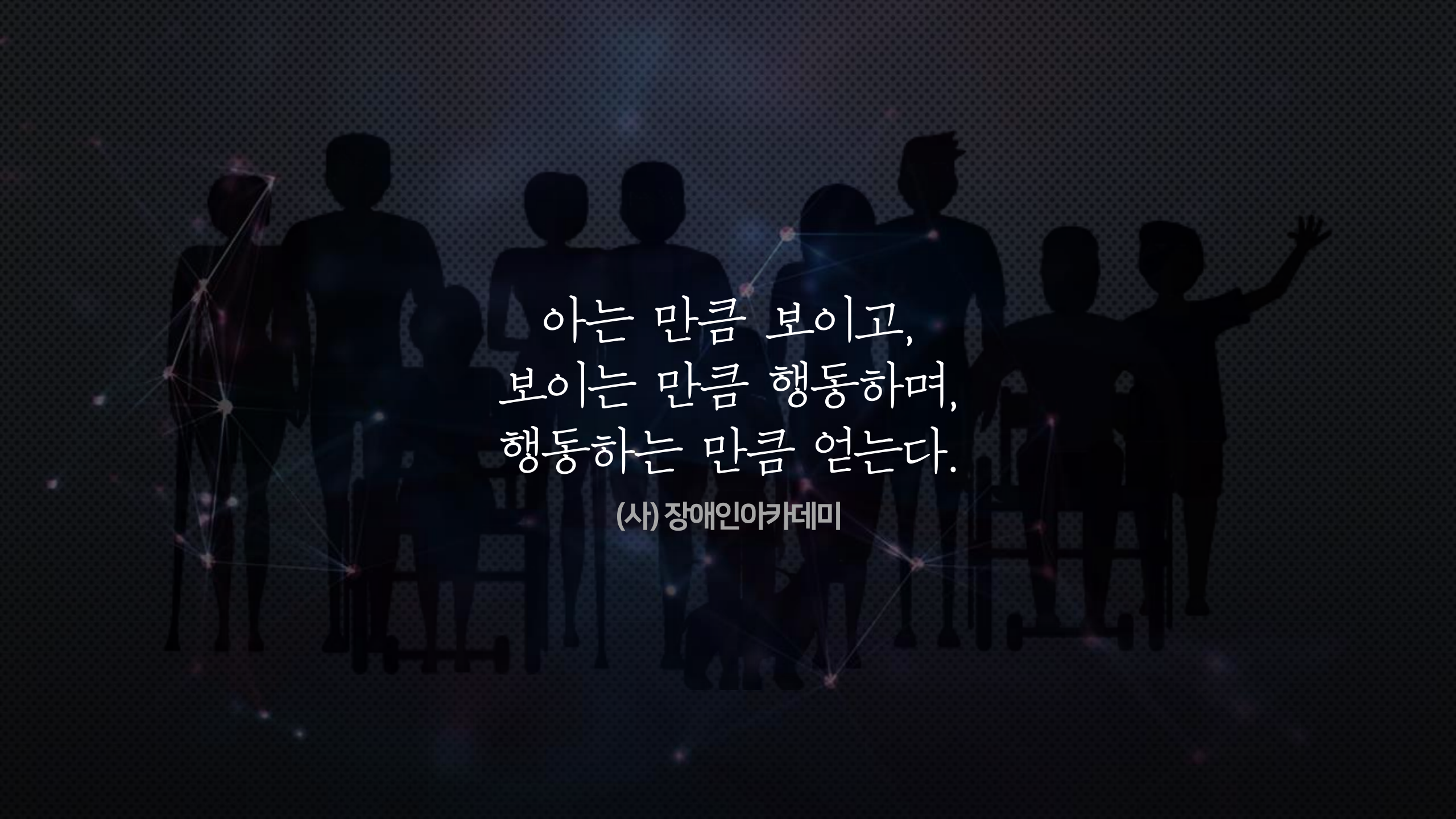
-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1856~1950)



장애를 다시 생각한다 ②

연결된 삶, 이어진 시간

(사) 장애인아카데미

The background features dark silhouettes of a diverse group of people, including men, women, and children, some using wheelchairs and others using canes. A network of glowing lines and nodes is overlaid on the scene, connecting various points across the image. The overall color palette is dark with blue and purple highlights.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하며,
행동하는 만큼 얻는다.

(사) 장애인아카데미